

개화기 호남 유림의 여성 인식

- 송사 기우만을 중심으로

김기림*

<차례>

1. 서론
2. 기우만의 생애 및 활동
3. 여성에 대한 기우만의 인식
 - 1) 여성의 열행에 있어서 종심(心從) 강조
 - 2) 아들 교육에 헌신하는 여성 부각
 - 3) 여성의 구활(救活) 행위 중시
4. 기우만의 여성 인식이 지니는 의미
 - 1) 가부장제 가족 체제 강화를 위한 여성 역할 증대
 - 2) 층으로 확장되는 여성의 덕성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개화기에 생존했던 기우만의 여성 인식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우만(1846~1916)은 한말 및 개화기에 호남을 대표하는 유림이다. 1846년 장성 탁곡(卓谷)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노사 기정진, 아버지는 기만연(奇晩衍), 어머니는 이기성(李耆成) 딸이다. 기정진 죽은 후 호남 유림들의 종장(宗長)으로 추대되었고 호남 의병활동의 중심 인물이었다.

개화와 조선 멸망이라는 격변기를 살았던 기우만은 기정진의 위정척사 정신을 그대로 수용했다.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규탄하기를 격려했고 51세의 나이로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아관파천 사건이 일어나자 외세에 의탁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듣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때 을사오적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광주, 서울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는 나라가 망한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신화로 자처하면서 칩거했다. 문화적으로는 소중화 의식을 토대로 당시 개화파의 의식과 개혁에 철저하게 반대하였다.

기우만은 여성이 하종하는 열행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죽은 남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이른 바 ‘심종(心從)’하는 열행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남편의 마음처럼 남편 집안을 흥성시키는 여성을 부각했다. 또 이를 위해 아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구활행위에 주목하여 향당에서의 여성 역할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우만의 여성인식은 당시 개화 사상의 영향으로 위협받던 가부장적 가족 체제를 지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여성의 위상을 가문적 차원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여성의 책무를 더 무겁게 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우만은 여성의 열행 정신을 충 윤리와 연계하면서 당시 위정자들의 비겁함과 배신 행위를 질타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기우만, 기정진, 기만연, 개화기, 심종하는 열행, 구활행위, 가부장제, 삼종지도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개화기에 생존했던 기우만의 여성 인식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우만(1846-1916)은 한말 및 개화기에 호남을 대표하는 유림이었다.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 1798~1879)의 손자이며 기정진의 죽은 후 호남 유림들의 종장(宗長)으로 추대되어 기정진 문하 호남 유림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 기정진의 위정척사 정신을 계승하여 서양 문물에 대해 배척, 일본의 침탈에 격렬하게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의 거사에 호남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호남인들의 의병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럼으로써 유림과 의병활동 양면에서 호남

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호남의 대표 유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기정진의 학문이나 사상을 그대로 수용했고 자신만의 학설을 따로 세우지 않았던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호남 의병운동에 영향이 컸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의병 활동 사에서도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을 뿐이다.¹⁾

기우만에 대한 연구는 그의 집안에 남아 있는 간찰이나 누정을 통한 장학 또는 교유활동에 집중되었다. 권수용은 노사 증가에 남아 있던 고문서 가운데 기우만이 받았던 간찰 내용을 살폈고, 한편으로는 호남 누정과 관련한 기우만의 시문 창작 활동에 대해 살폈다.²⁾ 그리하여 기우만이 기정진 사후 호남 유림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갔던 인물이며 문학 창작에 있어서도 호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한 작가였다고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우만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기우만은 개화기 직전에 태어나 조선의 개국, 외세의 조선 침탈과정, 조선 멸망까지 목격했다. 그의 일생은 전근대 성향과 근대적 성향이 교차, 병존하는 시기와 겹친다. 학문, 정치, 제도, 사회, 사상 등 전방면에 걸쳐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 공존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가던 때이다. 여성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여성 인식은 당대인들의 사상적 경향을 드러내주는 지표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³⁾ 호남 유림을 대표하는 기우만의 여성 인식을 살피는 일은 당대

1) 홍영기는 대한제국 시기 장성, 나주 의병 활동을 다루면서 기우만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2) 권수용, 『호남의 근대 누정 작가.작품연구-기우만, 오준선, 고광선을 중심으로-』, 『동방학』 19집, 2010.

『기우만의 수신간찰과 교유의 성격』, 『영남학』 24호, 2013.

3)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혜안, 2009.

호남 지역 인사들의 사상, 그 가운데 여성 인식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호남 유림의 사상 경향을 드러내는 실마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에 기우만의 여성 인식 내용과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기우만의 생애 및 활동

송사 기우만은 1846년 장성 탁곡(卓谷)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노사 기정진, 아버지는 기만연(奇晩衍), 어머니는 이기성(李耆成) 딸이다. 기씨가 장성에 들어와 산 것은 중종년간 기묘사화 때이다. 기묘 사림의 한 사람이었던 기준(奇遵)의 둘째 형인 기원(奇遠)이 기묘사화를 피해 장성으로 옮겨 온 이후에 대대로 살았다.

기우만은 8세 때 할아버지인 기정진을 모시고 하사(下沙)로 이사했고 이후 기정진이 죽을 때까지 줄곧 옆에서 모셨다. 기정진의 강학활동을 보좌하면서 집안일까지 챙겼다. 본격적으로 학문에 매진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책을 옆에 두고 틈틈이 책을 들여다보며 외우고 사색했다고 한다. 1879년 기우만 34세 때 기정진이 죽자 호남의 유림들은 기우만을 종장으로 추대했고 기우만은 기정진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기정진이 죽은 후 그의 글을 정리하여 문집을 출간, 한편으로는 유림의 종장으로서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 앞장섰다.

기우만 생존 시기는 조선이 국내외로 혼란한 때였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1876년에는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국가가 개방되었다.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의 원세개가 조선 정국에 개입했다. 1884년에 개화파들은 전통 복식을 개혁하려 했고, 1894년에 갑오개혁이 단행되었다. 정부 조직이 10아문으로 바

꾸고 모든 정령이 신식으로 되었으며 복식을 또 다시 변혁을 하고자 하면서 단발령이 포고되었다.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일본, 청나라, 러시아는 조선의 국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대원군이 납치되고 1894년에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되었으며 1896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897년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대한제국이 탄생했지만 국권은 일본 수중에 있었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결국 1910년에 일본은 조선 지배 야욕을 드러내면서 한일합방을 강행하여 조선은 망하게 되었다.

기우만은 조선의 개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는 격변기에 살며 조부인 기정진의 위정척사 사상을 현실 대응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⁴⁾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각 읍에 통고하여 규탄하기를 촉구했고 1896년에는 51세의 나이로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가자 ‘호랑이를 풀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꼴’이라면서 외세에 의탁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종묘 사직에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멸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였다. 의병을 일으켜 나주와 광주로 갔으나 신기선이 선유사로 내려왔으므로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해산했다.⁵⁾ 1904년에는 조정 관리들이 전국 국토의 권리를 일본에 양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⁶⁾ 유림들이 모여 상

4) 병인양요가 일어난 해에 기정진은 상소와 방비책을 올렸다. 이 때 어떤 이가 시국을 보니 조선은 약하고 적들은 강하기 때문에 화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그 이후부터 그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도 앉지 않을 정도였다.

5) 이에 대해 그의 삼종숙(三從叔)이며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기삼연은 유자와는 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홍영기는 왕을 드높이고 보호해야 한다는 근왕적 측면에서 본다면 왕명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기우만 의병활동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홍영기, 앞의 책.

6) 1904년 6월 나가모리(長森藤吉郎)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허락하였다가 전국

소하는 자리에 기재(奇宰)를 대신 보내 참여하도록 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은 빈 자리에 앉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허공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견양(犬羊)의 차지가 되었다.’⁷⁾ 고 분노했고, 을사 5적에 대해 ‘이 무리들은 선왕으로부터 받은 강토를 사사롭게 적에게 넘긴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6년에는 호남 사람들을 곡성에 모이게 하고 을사 5적 처단을 요구하는 연명 상소하는 일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후 을사 5적을 암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⁸⁾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 광주, 영광, 서울 등의 감옥에 갇혀 심문을 받았다. 1907년 4월 20일 서울의 감옥에서 출소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1910년에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서는 나라가 망한 신하는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해진 옷으로 바뀔 입고 죽림 속에 칩거하였다. 1911년 일본인들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유림들에게 은사금을 주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여 일본의 침략 야욕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기우만은 이씨 조선의 신하로서 살기를 맹세했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 방장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1916년 남원의 사촌에서 별세하였다.

기우만은 인생 후반기에 외세를 배격하고 적극적인 항일 활동을 하였

의 유생들이 상소하여 그만두게 한 일이 있었다.

- 7) 嗚呼曷歸 惟我三千里疆土 爲五六賊臣所賣 使吾君上坐擁虛位 蓋有土而後有國 如是而猶國謂之不亡乎 我生非懸空 必附著於土 所附之土 爲犬羊所據 凡我生爲李氏臣, 死爲李氏鬼者, 附著於于誰之土, (중략) 大而恢復疆土, 奠安宗社, 小而全軀保家, 歌樂泰平, 罔不在此, 惟僉君子是究是圖, <告別邑諸草甫> 乙巳十二月, 『송사집』 권10.
- 8) 1906년 壽山度가 具完喜, 李世鎭 등과 공모하여 당시 군부대신이었던 李根澤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기산도는 기우만의 당질이었고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고광순의 사위였다. 기우만과 고광순은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인맥으로 인하여 기산도에 의해 암살기도 사건이 발생하자 기우만도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다.

다. 개화기 기간 동안 호남의 의병활동은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일어났다. 을미의병은 친일개화당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고 병신년 의병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친일 매국세력에 대한 비판이었다.⁹⁾ 이 두 번의 의병 활동에서 기우만이 지도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의 의병 활동은 반개화, 반침략적 투쟁이며¹⁰⁾ 조선 왕권과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근왕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호남 의병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¹¹⁾

기우만은 조선이 중화의 맥을 이었다고 하여 조선 문화, 제도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다¹²⁾ 그리고 서양의 사상, 문물에 대해서는 샅된 것, 오랑캐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서양의 책을 사서 읽고 천주교가 성행한다는 말을 듣고는 ‘신주(神州)가 무너져 없어진 이후로 한 줄기 화맥(華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완전하여 동쪽의 중화가 된 지 3백년인데 지금 모두 없어졌다.’고 한탄했다.¹³⁾ 화이구분과 소중화 의식은 위정척사 운동의 이념적 기반이었다.¹⁴⁾ 소중화 자부심은 갑오개혁 개화에 대한 비판 정신의 뿌리였다.

9)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84쪽.

10)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12쪽.

11)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고광순은 ‘송사는 사림의 영수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상소한 글도 있고 이어서 창의하기도 했으니 혈기 있는 자라면 누가 지도받기를 원치 않겠는가? (松沙士林領袖 山斗雅望 既有封章 繼又倡義 有血氣者 孰不願執鞭, <通告列邑文>, 고광순, 『鹿川遺稿』 권상.)’이라고 하였고 의병장 양희일도 의병봉기에 앞서 기우만을 찾아와 상의하기도 하였다.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2) 第念蠻夷猾夏, 神州陸沈, 禮樂文物, 獨在吾邦, 苑有小華之稱, 見今蹄跡日交, 世級日淪, 觸目無非赤黑, 入耳半是侏, 一線華脈, 無地可保, <華隱記>, 『송사집』 권21.

13) 先時朝廷用大臣言 連結倭洋 購入洋書 西教恣行 罷三軍之府 設機務之衛 先生門而太息曰 神州陸沈 一線華脈寄在吾東方 苑爲東華者三百年 今又淪胥春秋存養大義只在士君子方寸上耳. <年譜>, 『송사선생문집습유』 권2.

14) 홍순권, 앞의 책. 317쪽.

개화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천하 각국이 패망한 자취가 이미 환하게 드러나 속일 수 없게 되었다. 대기 이른바 개물(開物)하여 일을 이루는 것과 백성을 교화하여 좋은 풍속을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나쁜 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 이름만 훔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다. 물(物)로 일을 이름에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백성의 풍속을 아직 다 교화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화하(華夏)를 써서 오랑캐를 변화시켜야 하니 오랑캐는 이로써 중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실로 좋다. …(중략)…개화(開化)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예의 문물을 스승으로 삼아 천하의 복식을 법으로 삼고 천하의 머리카락을 길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도리어 우리의 법복을 훼손하고 우리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손상시키며 우리의 전장(典章)을 고치려고 한다. 오랑캐의 문물을 열어놓아 오랑캐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 오랑캐 백성으로 변화시켜 오랑캐 풍속으로 만들려고 한다.¹⁵⁾

기우만은 개화를 ‘만물을 잘 살펴 그 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일을 이루어내는 일이며 백성을 잘 교화하여 좋은 풍속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다. 중화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 중화를 간직한 우리나라 조선이야말로 개화의 기준이라고 했다. 진실로 개화를 하려면 우리의 복식과 우리의 용모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우만이 말하는 개화는 문화

15) 至若開化二字，是天下各國敗亡之已迹昭著而不可誣者，蓋其所謂開物成務，化民成俗，未始非好語，而彼乃竊其名而濟其欲，若物務有未開，民俗有未化，則用夏變夷，夷以進於中國固可也，我國雖委靡不振，其爲一變至道之魯則足矣，有意開化者，祇當師範我禮義文物，法天下之服，長天下之髮，而今則不然，反毀我法服，傷我膚髮，變改我典章，開夷狄之物而成夷狄之務，化夷狄之民而成夷狄之俗，噫何其舛也，且夫夷狄之難化也久矣，雖以古聖王之博施，置之度外，以嚴其界限，不與同中國而已，而彼所謂開黨者，生長四千年禮義之邦，霑被五百年休養之恩，而引仇賊爲腹心，迫脅君父，禍及母后，革我舊典，髡我臣庶，舉一國而奴隸於倭洋，抑獨何心哉，嗚呼痛矣。松沙先生文集卷之十。〈乙未疏〉，기우만, 『송사집』 권2 (1894년 12월에 올린 상소).

적 중화로 동화되는 것이다.

당시 개화파들은 조선의 전통을 구시대적인 폐습으로 간주하여 개혁할 대상으로 여겼다. 서양의 사상, 문화, 문물을 개화 기준으로 하여 정치부터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양식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우만은 서양과 일본을 오랑캐로 보았고 그들의 문화, 문물을 오랑캐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개화파의 개화란 중화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화를 변질시켜 오랑캐로 만드는 일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정(正)-바름’이 아니라 ‘사(邪)-거짓’된 개화로, 개화라는 이름만 훔쳐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일로 규정했다.

삿되고 거짓스런 상황을 바름으로 돌리기 위해 기우만은 도학의 맥을 강조하며 윤리 도덕의 회복에 힘썼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석채(釋菜)와 향음주례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향음주례를 실시하고자 하는 알림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밝혔다.

바름을 붙들고 삿된 것을 배척하는 일은 두 가지 이치가 아니다. 바름을 붙잡게 되면 거짓은 저절로 배척된다. 지난 해 사류(邪類)들이 변성한 일은 우리의 도가 밝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유자(儒者)된 이들이 어찌 반성해야할 척연한 처지가 아닌가. 바른 학문(正學)을 드높임으로써 이단을 물리치는 일이야말로 우리 유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요, 지금은 더욱 급선무로 삼아야한다. 이에 한 자리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일이 없을 수 없으니 서로 이끌고 대면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3월 망일에 향음주례를 설행하고자 한다.¹⁶⁾

16) 扶正斥邪，有非二致，扶正則邪自斥，年前邪類之滋蔓，皆由於吾道之不明，爲吾儒者，豈非反省惕然處也，崇正學以闢異端，爲吾儒第一義諦，而今日尤爲急先務也，此不可無一席爛商，相率而面勸也，第以三月望日，說行飲禮，嗚呼，一日賓主百拜，豈遽爲崇明正學，而變移風俗基本立矣，聖人明言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此亦可援以爲證案也。〈與諸同志 乙未〉，기우만, 『송사집』 권10.

기우만이 주장한 ‘부정척사(扶正斥邪)’는 기정진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바른 학문을 잡게 되면 거짓된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데 거짓이 세상에 번성한 것은 정확의 도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른 학문을 단단히 붙들고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유자들이 급선무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향음주례나 석채 등을 통해 윤리 도덕적 기강을 회복하고 성현의 도맥을 재확인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중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문화야말로 올바르고 개화된 것이며 정확이 아직 건재함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우만은 호남 유림의 종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으나 따로 학설을 세우지 않았다. 스승인 기정진이 조부였으므로 집안 어른의 학설에 대해 부가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정진의 강학활동을 돕느라 정식 강학 공간에서 배우는 일도 어려웠다. 기정진이 제자들에게 강학하는 내용을 곁에서 듣고 책을 읽고 사색하여 학설을 터득했을 뿐이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거나 스승과 토론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승의 학설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학파와의 학문적 토론은 기정진 제자들에게 일임하였다. 영남 살던 최동민(崔東敏), 권봉희(權鳳熙) 등이 기정진의 <외필(猥筆)> 내용을 빌미로 삼아 노사문집 판본을 훼손하려 했다. 이 일로 인해 <납량사의(納涼私議)> 내용까지 논란거리가 되었을 때 기우만은 학설을 세워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기정진 제자였던 노백현 정재규가 지은 변의(辨議)로도 충분하며 학설과 관련한 모든 일은 기정진 문하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⁷⁾ 또 기정진의 제자나 친

17) 연보 123쪽.

기정진의 저술인 <납량사의>, <외필>에 대해 물의가 일어나고 간재 전우가 <외필 변(猥筆辨)>, <납량사의의목(納涼私議疑目)>을 지어 기정진 학설을 비판하자 정재규는 <納涼私議記疑辨>, <猥筆辨辨>을 지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강정화, 노

우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성리학파 관련한 전문 저술이 없으며 이는 기우만 연구가 소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평소 유교 윤리를 강조했던 만큼 삼강에 가까운 행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는데 『호남의사열전(湖南義士列傳)』도 그런 의도에서 저술하였다.¹⁸⁾ 그의 문집으로 『송사집』과 『송사선생문집습유』가 있다.

3. 여성에 대한 기우만의 인식

1) 여성의 열행에 있어서 종심(心從) 강조

조선 초기에는 개가(改嫁)하지 않는 일도 열행으로 간주했는데 조선후기로 갈수록 ‘죽음’을 수반하여야만 열행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추세는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하종하는 열행이 증가하는 폐단을 낳았다. ‘열녀’는 ‘죽음’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개념이 되었던 것이다.

‘죽음’ 수반의 열녀 개념은 18세기 후반부터 비판되기 시작했다. 정약용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종하는 일은 무익하다고 했고, 성해응은 열녀를 가려내기 위해 특이한 행적을 고르려다 보니 ‘죽음’이 있는 경우를 택

백헌 정재규의 삶과 학문-강우지역에서의 노사학 계승 및 확산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9집, 남명학연구소, 2010. 155~184쪽.

18) 이것은 『송사선생문집습유』에 실려 있다. 1909년(64세)에 지은 책이다. 기삼연(寄參衍), 김봉규(金奉奎) 등 모두 13인의 의병활동에 대해 서술하였다. 기우만은 을미사변 이후부터 병신년까지(1895년-1896) 있었던 의병들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여 <羊猿膏膽>을 엮었으며 앞으로 의병활동을 하다 죽은 이들의 행적을 모아 그 외편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호남의사열전』이 바로 그 책인 듯하다. (宇萬自乙未國變以後至丙申義舉始末 收粹爲錄 名曰羊猿膏膽 將採撫龍蛇死節諸公 以爲外編. <林泉行蹟序>, 기우만, 『송사집』 권15.)

하게 되었고 이로써 열녀와 죽음은 동시에 환기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허전도 원래 열행이란 수절하면서 개가하지 않는 뜻이었는데 조선후기에 와서 하종(下從)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녀라고 칭송하는 일이 습속이 되었다고 하였다. 19) 이들은 한결같이 ‘죽음’이 수반되어야 열행, 열녀라고 일컫는 세태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다.

기우만의 열행, 열녀 개념도 이와 일맥상통하여 죽는 열행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였다.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일과 그렇지 않을 때의 열을 비교하였다.

열렬하다, 열렬하다고 하면서 근래에는 남편이 죽으면 하종하는 일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죽은 남편의 마음을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았으니 순수한 열(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진실로 순렬(純烈)한 것을 나는 양부인(梁夫人)에게서 보았다.²⁰⁾

기우만은 ‘열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열행’, ‘순수한 열행’로 열행을 구분한다. 남편을 따라 즉시 죽는 일은 당연히 열행이 되고 그 여성은 열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성은 남편의 신체적 죽음 상황에 속에서 자신의 신체도 ‘죽음’으로써 버린다. 이는 신종(身從)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세상에 부재하면 자신도 세상에서 부재하는 방식으로 열행을 이룬다. 곧 자

19) <烈婦論>,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권11.

近世以來 裁擇不能公 …(중략)… 是故有司難於裁擇取於孝者 必斫指嘗糞 取於烈者 必捐生下從 不如是 輒去之. <青城孝烈傳>, 成海應, 『研經齋集』 권52.

古所謂 烈女者 惟曰 不更二夫 亦惟曰 夫死不嫁 而已 …(중략)… 我東以禮義立國 化民成俗 雖匹庶之賤 早寡無依者 莫不固守貞節 故獨以殉身下從者 名爲烈女. <崔孺人孝烈錄後序>, 許傳, 『性齋集』 권13.

20) 烈云烈云, 近世以夫死下從爲準, 而厥或不心亡夫心, 未可謂純矣, 純於烈, 吾見梁夫人, <贈淑夫人梁氏墓表>, 기우만, 『송사집』 권41.

신의 ‘몸’을 오로지 남편과의 맥락 속에서 관계 짓는 방식이다.²¹⁾ 기우만은 신중하는 열행을 순수하거나 진짜 열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남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그 마음을 여성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이른 바 심중(心從)하는 열행을 주장했다. 이를 순열(純烈), 진열(眞烈)이라고 하였다.

삼산자는 말한다. 후세에 와서는 남편이 죽으면 하종하는 일을 열행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울어대는 것도 그냥 내버려둔 채 자기 뜻만을 이루어내는 이들이 있었다. 이는 남편이 죽어 급박한 한때의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에 말하던 열(烈)은 이와 같지 않다. 비록 하루 아침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남편의 마음을 백 년간 자기 마음으로 삼았으니 이야말로 진실로 열부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이유인에게서 보았다. 부모에게 중첩되는 슬픔을 끼치지 않고자 함이 죽은 남편의 마음이었다. 아버지의 상례까지 다 치러 효도를 끝마치고자 함이 죽은 남편의 마음이었다. 후사를 세워 제사를 부탁하고자 함이 남편의 마음이었다.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죽지 않고 죽은 남편의 마음으로써 하였다. 그리하여 하종하고자 하는 처음의 마음을 스스로 그만두었으니 더욱 더 빛난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 어찌 하루 아침에 목숨을 버리는 데에 비할 것인가²²⁾

21) 이혜순은 ‘중사(從死)하는 열행 찬미가 여성이 개별성을 강화하면서 부부 중심적 성격을 지니며 하나 남편의 아내라는 점이 초점이 되고 강조되었다’고 하였다.(이혜순, 『열녀전의 입전식과 그 사상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조선시대의 열녀 담론』, 월인, 2002, 30쪽.) 강명관은 ‘여성을 한 남성과의 성적인 관계에만 국한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22) 三山子曰, 後世以夫死下從爲烈, 或至於置子呱呱而直遂其志者有焉, 此不過一時崩迫之情, 古所謂烈不如是, 雖不死於一日, 而心亡夫心於百年, 乃眞烈婦也, 若是者, 吾於李孺人見之矣, 不貽父母重憾, 亡夫心也, 父喪終孝, 亡夫心也, 立後託祀, 亡夫心也, 于此三事不死, 以亡夫之心, 而自己下從之初心, 尤炳炳矣, 若其辛苦艱難, 豈一朝辦命之比耶. <孺人李氏傳>, 기우만, 『송사집』권50. <孺人李氏傳>, 기우만, 『송사집』권50.

이유인(李敦秀 딸, 鄭禧源 처) 남편이 병났을 때 정성껏 간호하며 기도했지만 남편이 죽었다. 자식도 없어 즉시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자식처럼 여겼는데 자기도 죽으면 시아버지 입장에서 자식 둘을 한꺼번에 잃는다’고 생각하여 죽기를 그만두었다. 이후 미망인으로 자처하고 시아버지를 10년 넘게 봉양했다. 시아버지가 죽자 남편의 형 정성원(鄭誠源)이 동생 대신 시아버지 상을 같이 치러야 한다고 하여 상례와 장례에 필요한 일들을 직접 챙겼다. 정성원이 다시 동생의 후사가 없으니 후사가 생겨 제사를 부탁할 수 있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후사를 들여 집안 제사를 이어가게 하였다.

이씨는 하종하지 않아 시부모에게 슬픔을 끼치지 않았고 시아버지 봉양, 상례 주관, 남편의 후사까지 다 챙겼다. 이씨가 하종했다면 세 가지 일은 불가능했다. 기우만은 이씨가 남편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씨가 남편 마음을 받들어 살아가기 위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부각하면서 이런 열행이야말로 진짜 열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죽는 열행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²³⁾

다른 여성 기록에도 이런 인식이 나타난다. 문씨(文昌命 딸, 姜奎煥 처)는 남편이 전처 아들 둘만 남겨놓고 죽자 방적으로 생계를 꾸려 시부모를 봉양하고 전처 아들을 길렀다. 개가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금수같은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기우만은 문씨가 남편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남편과 신의를

23) 이렇게 남편 마음을 헤아려 살아간 여성의 행적과 남편 따라 죽는 여성의 행적을 대조하는 태도는 다른 글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養喪子姑, 使終天齡, 育螟嗣兒, 以存先祖祀, 皆亡夫之心, 蘇孺人不心己心, 而心亡夫之心, 爲未亡人在世, 其義烈豈可與致命於一時, 以遂己心者, 同日而語也. <烈婦蘇氏旌閭記>, 기우만, 『송사집』 권 19.

지키게 되었으므로 열을 다 이루어냈다고 칭송했다.²⁴⁾ 문씨는 가난, 전처 자식의 양육, 개가의 압력 등 삶에 버거운 상황 속에서 곳곳하게 남편의 마음만을 되새기며 효와 열을 실천했다. 기우만은 이처럼 효열을 겸비한 삶을 살아낸 여성을 이상으로 여겼다.

기우만은 이처럼 온갖 고초를 겪어내는 열행을 부각하고 죽는 열행을 찬탄하는 데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삼종지도를 그 근거로 삼았다. 삼종지도는 남성은 천지의 도를 맡아 기르는 존재이며 여자는 남자의 가르침대로 의리를 기르는 존재이므로 남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²⁵⁾ 기우만은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것은 예경에서 허용한 것이며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목숨을 버리는 일은 예의 바름이 아니다.’²⁶⁾라고 했고, ‘전(傳)에 이르기를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야 할 아들이 있는데도 목숨을 버리는 일은 가히 순수한 열(烈)이라고 할 수 없다.’²⁷⁾고 하면서 여성의 삼종지도를 부각했다.²⁸⁾ 특히 전을 통해 이를 강조하기도 한다. 전은 어떤

24) 外史氏曰, 不爲未亡人在世, 孺人心也, 養喪子之姑, 育失父之孤, 亡夫心也, 使孺人心孺人心, 而不以亡夫心爲心, 則老姑誰養, 稚輩誰育, 不忘夫臨終之託, 養姑終天年, 育兒立夫家, 孝烈之稱宜哉. <孝烈婦文氏傳>, 기우만, 『송사집』권50.

25) 任也 子者, 孳也 男子者, 言任天地之道, 如長萬物之義也, 故謂之「丈夫」, 丈者, 長也 夫者, 扶也 言長萬物也, 知可爲者, 知不可爲者, 知可言者, 知不可言者, 知可行者, 知不可行者, 是故, 審倫而明其別, 謂之知, 所以正夫德者, 女者, 如也, 子者, 孳也, 女子者, 言如男子之教而長其義理者也, 故謂之婦人, 婦人, 伏於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本命>, 『대대례기』

26) 夫死從子, 禮經所許, 所從有地而必於致命, 非禮之正. <書金孝婦實行後>, 기우만, 『송사집』권22.

27) 傳曰夫死從子, 所從有子, 而遽以致命, 未可謂純烈, 若李公秉燁夫人金海金氏則異於是.<烈婦金氏遺蹟碑>, 기우만, 『송사집』권25.

28) 삼종지도를 특별히 부각하여 강조하는 경우는 기우만 글에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숙인 임씨는 (崔有煥 처, 林永燦 딸) 남편이 죽었을 때 이미 70세였다. 그 때 아들에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마는 예에 이르기를 아들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

인물이 본받을 만한 것이 있거나 후대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짓는다.²⁹⁾ 후반부인 논평은 작가의 입전 의식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인식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기우만은 논평에서 삼종지도에 기반한 심종(心從)적 열행 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아들을 따르는 일이 곧 남편을 따르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⁰⁾ 박씨(鄭在堯 처)는 돌봐야 할 아들이 있어 평생 미망인을 자처하면서 살았다. 기우만은 박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종유자(所從有子)’ 하여 ‘삼종의 도리를 다했으므로 박씨는 도에 맞는 행동(中行)을 했다’고 하였다.³¹⁾ 반면 김씨(金鎭允 딸)는 남편 배씨가 죽자 젓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후 유서를 써 놓고 죽었다. 기우만은 따라야 할 아들이 있는데 죽고 싶어하는 자기 뜻만 이루었으니 ‘도에 딱 들어 맞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뒤처진다’고 하였다.³²⁾ 물론 남편 죽은 후 곧바로 죽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기우만이 강조하는 중심적 열행은 이처럼 삼종지도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삼종은 여성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도리였고 이를 잣대로 삼아 열행을 평가하면서 하중하여 ‘종신-몸으로 따르는 열행’보다는 중심-마음

으니 마땅히 천수를 다 누리고 죽어야겠구나.’라고 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임씨가 예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나 아들을 따름으로써 삼종지도를 다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서술방식이기도 하다. 그만큼 기우만은 여성의 삼종지도를 부각하였다.

29) 按字書云 傳者 傳也 紀載事迹以傳於後世也…(중략)… 嗣是山林里巷 或有隱德而弗彰 或有細人而可法 則皆爲之作傳以傳其事. 徐師曾『文體明辨序說』.

30) 夫人三從, 從子其一, 豈專以夫死下從爲烈, 況存孤立家, 亡夫心也, 心亡夫心, 所謂從夫者自在焉. <孺人車氏墓表>, 기우만, 『송사집』 권42.

31) 世或有有子猶飲乳, 而不顧其無恃, 自遂己心, 以絕夫嗣者, 此禮經所不許, 吾故以朴孺人爲中行也. <鄭氏孝烈旌閭記>, 기우만, 『송사집』 권19.

32) 嗚呼, 所從有子, 而遽遂己心, 或遜於中行. <裴氏兩世孝烈旌閭記>, 기우만, 『송사집』 권19.

으로 따르는 열행'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2) 아들 교육에 헌신하는 여성 부각

기우만은 삼종지도를 적극 부각했다. 그에게 있어 아들은 남편 잃은 여성이 살아남아야 할 근거였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있어서 따르면 순수한 열행이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열행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³³⁾

아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선대의 제사를 이어받고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제사와 가계를 잇는 귀한 존재였다. 기우만의 아들 중시 태도는 특별하게 보인다. <유인최씨묘표>에서 남편이 죽자 하종하려던 최씨는 유복자가 있어 마음을 바꿨고 아들을 낳았다. 기우만은 '과연 남자 아이를 낳았다.'라고 표현했다.³⁴⁾ 남편 잃은 여성이 아들이 있으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함은 그 만큼 아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기우만은 아들 교육에 헌신하는 여성을 칭송하였다.

김씨(金俊洪 딸, 金用鉉 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들 김한각(金漢珪)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2번이나 이사를 단행했다. 김씨가 이사한 이유는 살림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아들 교육 때문이었다. 아들 교육과 성공은 곧 집안의 명성 및 흥성과 직결되는 만큼 아들의 교육환경을 헤아려 이사를 즉행하는 과단성을 보인다. 이러한 일은 맹자 어머니의 행적과 비견할 만한 것으로서 기우만은 현모의 일이라고 한다.³⁵⁾ 기우만은 김씨의 묘표를 쓰면서 단 두 가지

33) 世人以夫死下從爲烈，而不問其所從有無，蓋過論也，有子方幼，遽作遠行，行者雖不言，不言之言自在，養失父之孤，成立夫家，亡夫之心宜爾，而自心其心，不顧而致其命，未可謂烈。 <孝烈婦朴氏傳>， 기우만, 『송사집』 권50.

34) 果生男子子。 <孺人崔氏墓表>， 기우만, 『송사집』 권43.

일만 부각했는데 남편이 아팠을 때 지극 정성으로 간호한 일과 아들 교육을 위해 두 번 이사한 일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적들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육체 노동을 꺼리지 않고 가족들의 거처까지 옮기는 적극성과 과단성을 보여준다. 그만큼 아들의 교육을 위한 헌신적 노력이며 이에 대해 기우만은 여자 선비, 현명한 어머니라고 칭송하였다.

더 나아가 아들 교육을 위해 공부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선생님을 초빙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여성도 있다.

장씨(張赫奎 딸, 朱廷夏 처)는 남편 죽는 후 아들들이 아버지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하였다. 아들 교육을 위해 글 읽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선생님을 모셔와 가르치게 했다. 자식들에게는 다른 일로 마음 쓰지 말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타일렀다.³⁵⁾

권씨(權必大 딸, 柳星極 처)는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 와 방적으로 재물을 불렀다. 권씨의 목적은 처부보다 아들 교육이었다. 아들을 교육을 하지 않음은 부모의 잘못이라면서 그 책임감도 강조했다. 권씨는 재산을 불리고 공부와 숙식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했다. 아들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맞이하여 배울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해 준 것이다.³⁷⁾

이 외에도 조의곤(曹毅坤)의 어머니인 안씨(安光瑛 딸, 曹炫璋 처)는

35) 事父母稱孝女, 事舅姑稱孝婦, 接君子稱賢媛, 訓子稱賢母, …(중략)…嘗語夫子曰, 此非教子之地, 請擇仁里, 徙宅凡二度, 又營於夫山舊趾. <孺人金氏墓表>, 기우만, 『송사집』 권43.

36) 教子有節度, 不以無父而加恩愛, 義方甚嚴, 置書社迎賢師, 供饋必躬檢加意, 使諸子動念勤課, 常曰汝輩未有見焉, 家無賓客, 尋常爲恨, 吾見汝祖汝父在世行義, 座上多客, 見今寂寞如此. <孺人張氏傳>, 기우만, 『송사집』 권50.

37) 天佑孝婦, 家道稍饒, 喫著無窘乃曰有子而無教, 父母之過, 結齋庠糧, 延師邀友, 又使之就正於有道, 二子弘烈, 基烈, 皆見稱法拂, 實孺人之教使之然也. <孺人權氏墓表>, 기우만, 『송사집』 권43.

방적으로 살림을 꾸러가면서 아들의 공부를 부지런히 독려했다. 아들이 사는 집에 손님들이 많으면 더욱 마음을 기울여 음식 대접도 하였다. 다른 지방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면 옷가지, 먹을거리 등을 넉넉하게 보내주었다.³⁸⁾ 그리고 집안의 자잘한 일 따위로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계했다.³⁹⁾ 조의곤은 기정진 문하생이었다. 기우만은 안씨가 아들 교육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소상히 알 수 있었다. 안씨의 헌신은 기우만이 보기에 도 충분히 칭송할 만한 일이었다. 이에 기우만은 안씨의 묘표 서두에서 ‘옛날 어진 아들은 반드시 어진 어머니가 양육하여 이루어 낸 것이다.’라고 단언하였다.⁴⁰⁾

이처럼 기우만은 교육 비용,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는 격언, 선행 등을 통한 구술적 훈계를 넘어선다. 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지원, 교육환경 조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여성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과당성과 열성을 중시하는 기우만의 여성 인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8) 최익현과 기우만이 조의곤에 대해 쓴 글을 보면 그의 나이 20세 때 기정진에게 공부하러 처음 왔을 때 의관과 말 안장이 자못 사치스러웠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안씨는 아들 교육을 하는 데에 남에게 뒤지 않을 정도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듯하다. (既冠, 贊謁蘆沙奇先生于沙上, 衣冠鞍馬, 頗侈., <東塢處士曹公墓碣銘>, 최익현, 『면암집』)

39) 求古賢人之爲賢人, 必有賢慈氏以養成之, 蓋自乳哺至免懷, 薰陶漸漬, 母之力爲多, 以吾耳目所及 每子舍客多, 喜形于色, 酒饌必加意, 或讀書他所, 衣糧必先期送之, 且戒之曰, 世間出世間事未聞兩就, 勿以家累妨工也, 每師門行, 告歸期, 則曰遊先生門下, 何歸期之必告, 雖曠日月, 所幸困歸耳. <孺人安氏墓表>, 기우만, 『송사집』 권42.

40) 求古賢人之爲賢人, 必有賢慈氏以養成之, 蓋自乳哺至免懷, 薰陶漸漬, 母之力爲多. <孺人安氏墓表>, 기우만, 『송사집』 권42.

3) 여성의 구활(救活) 행위 중시

묘지명, 행장 등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서술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시택에서 시부모, 남편, 시가쪽 친족의 관계 속에서 여성이 행했던 일들이 서술된다. 기우만은 그 가운데 친족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구활 행적을 종종 부각한다.

(임씨는) 10여 세 안팎의 나이인데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덕과 은혜가 미칠 정도였다. 기근이 드는 해에 이웃 부녀들 중 굶주린 기색이 있으면 먹을 것을 미루어서 먹게 하니 칭송이 자자했다. …(중략)…병자년 때에는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숙인은 친히 음식 주관하는 일을 맡아 하면서 고르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집안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빠뜨린 사람이 없었다.⁴¹⁾

(안씨는) 일찍이 재해가 기승을 부렸을 때 의지할 데 없고 병든 노파를 받아들여 잘 조리하게 하여 살려내기도 하였다. 또 한 어린 아이가 다니다가 병을 얻었는데 의지할 곳도 없었다. 그리하여 바깥채에 살도록 허락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해주어 병을 치료하게 했다. 그 사람은 늙을 때까지 은혜에 대해 감격하였다. 이웃에 늙은 아녀자가 곤궁한 데가 굶주리게 되자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밥을 덜어 나누어 보내고서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⁴²⁾

임씨의 (林永燦 딸, 崔有煥 처) 행적 중 특히 병자년 일에 주목했다.

41) 十歲內外，已有德惠及人，饑歲，隣里婦女見有飢色，推食而食之，藉藉有稱，…(중략)…值丙子無穀，口衆艱濟，淑人親任饋食，均分有無，至宗黨至隣比，無向隅一人。〈淑人林氏墓碣銘〉，기우만, 『송사집』권37.

42) 嘗診熾，無告病婆，受委調活，又有一童行得疾無歸，許致外舍，始終救療，其人至老感恩，隣有老婦窶餓，每飯必分送之曰以安吾心，蓋其天稟仁厚，不待勉強，而德惠已周洽矣。〈孺人安氏墓表〉，기우만, 『송사집』권42.

1876년은 심한 흉년이였다. 다른 해보다 가뭄이 심했고 된서리도 일찍 내려 곡식을 수확할 양이 극히 적었다. 왕이 내탕고에서 1만 냥이나 되는 구제금을 내고 각종 세금을 감하거나 유예해주라고 명령한 정도였다.⁴³⁾ 임씨는 50세로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이웃이나 친족들까지 관심을 기울여 구제한다. 물론 임씨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고 남편 최유환도 베풀기를 좋아했다.⁴⁴⁾ 그러나 남편의 뜻을 받들어 베푸는 것은 아니었다. 기우만은 임씨의 10여 세 일을 서술하여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임씨의 천성임을 드러냈다. 남편이 베푸는 일을 좋아해도 여성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 여성의 삶을 기록할 때 시혜한 행적을 서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안씨(安光映 딸)는 처음 시집왔을 때 무척 가난하였다. 밤을 새워가면서 방적을 하여 생계를 꾸렸는데 몸이 아플 때에는 실 꼬는 일이라도 할 정도로 부지런했다. 자식들이 색다른 음식을 차려내면 상을 물리칠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는 후하였다. 병들어 의지할 데 없는 노파나 아이를 자신의 집에 들여 먹여 주고 병을 치료하도록 마음을 썼다. 굶주리는 이웃이 있으면 거르지 않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기우만은 안씨의 소박함과 남에게 후하게 베푸는 일을

43) 教曰 今年亢旱，殆近世罕有，而竟又肅霜早戒，晚稼失收榆之望，窮鄙倍懸罄之歎，畿輔、三南之偏告歉荒，不待年分之啓而可以揣知矣，…(중략)… 特下內帑錢，京畿、湖西、嶺南、湖南各一萬兩，此不足爲一分拯濟之補，道臣量宜排補於賑資之用，至若尤甚邑湖膳，節日方物物膳，限明秋勿爲封進，各殿宮湖節物膳，旣蒙慈教，亦一體停俸，節扇進上，亦爲停免，以爲來頭補賑之資，俾有實效於顛連近止之民，咸知朝家軫恤有不容少緩之意，廟堂行會於四道道臣。『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1876) 병자, 9월 22일, 기묘

44) 和隣里睦親戚，賑窮乏，恤災患，〈小潭崔公墓誌銘〉，최익현, 『면암집』 권35. 輕財喜施，知舊族戚昏葬失時，周給靡遺力，饑歲，斗粟所濟亦多，〈小潭崔公墓碣銘〉. 기우만, 『송사집』.

대조함으로써 안씨의 구활 행위를 부각하였다.

안씨(安七宗 딸, 洪在洙 처)도 밥 먹을 때 대문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먹을 것을 고르게 나누어 주었다. 임씨(임영찬 딸)와 마찬가지로 병자년 흉년 때에는 굶주림으로 죽을 지경에 처한 많은 이들을 구제했고 도적들이 물건을 훔쳐가도 못 본 척하기도 하였다.⁴⁵⁾

기우만이 서술한 여성들의 행위는 단순히 어렵게 사는 이들을 돕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흉년이나 전염병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이들을 살려내고 있다. 기우만은 생명을 구하여 삶을 되찾아주는 여성의 행적에 초점을 두고 서술한 것이다. 구활 활동이 남성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성도 참여할 수 있고 여성들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 이들의 행적을 칭송하면서 ‘옛날 女士와 같은 풍도가 있어 각 집안에서 여자들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⁴⁶⁾라고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 기우만이 서술한 여성의 구활행위는 친족뿐 아니라 집 밖의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여성의 구활 행위를 집안이나 혈연적 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웃 곧 같은 지역, 향당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여성의 역할을 가족 관계 속에서 한정하지 않고 향당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기우만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5) 里婆老少, 食時填門, 推食必均, 丙子無穀, 斗粟碗粥, 多所濟活, 或有盜竊什物, 若無見也, 其德厚如此. <孺人安氏墓誌銘>, 기우만, 『송사집』 권40.

46) 其處事從容, 有古女士風, 吾欲寫實一通, 以與各家婦女爲良箴. <淑人林氏墓碣銘>, 기우만, 『송사집』 권37.

4. 기우만의 여성 인식이 지니는 의미

1) 가부장제 가족 체제 존속을 위한 여성 역할 증대.

개화기 때에는 개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조혼비판, 여성의 개가허용 등이 가족 체제와 관련한 내용들이 공적으로 발언되었다. 갑오개혁으로 인해 조혼이 금지, 여성 개가 허용 등 기존의 가부장적 제도나 관습은 그 영향력에 타격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유림을 중심으로 여성의 수절이나 열행을 강조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옹호하였다. 그리하여 개화기는 여성이나 가족제도에 대해 이와 같이 상반되는 의식들이 병존하였다.

기우만은 부정척사(扶正斥邪)를 내세우며 유교적 질서를 회복, 강화하고자 하였으므로 전래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족체제를 지켜가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이런 성향은 여성이 이룩한 삶의 결과 중에서 가계 계승, 제사 계승 등 남성 집안 흥성, 존속과 관련된 것들을 부각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세상에는 죽은 남편 마음을 잊고 급박한 때에 목숨을 끊어 남편 집안의 제사를 끊어버리는 이들이 있다. 지금 자네 집안에 이처럼 아들과 손자들로 하여금 오늘날과 같이 잘 보전하게 되었는데 유인이 미망인으로서 세상에 살았던 그 힘 덕분에 아닌 것이 없다.⁴⁷⁾

이는 유봉술(劉鳳述) 처인 차씨에 관한 글이다. 차씨는 남편 죽은 후 하종하려고 단식하다가 3살 아들이 있어 마음을 바꾸었고 이후 아들을 잘 길러 여러 손자를 두었다. 차씨가 죽었다면 3살 아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47) 世間有罔念亡夫之心，崩迫致命，遂使夫家絕祀者有之，今君家有子有孫，保有今日，罔非先孀人爲未亡人在世之力，其孰烈而孰不烈，自有能辨之者矣。〈孀人車氏墓表〉，기우만, 『송사집』 권42.

저 자손이 번창하고 집안이 흥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차씨의 하종은 유씨 집안 자손을 방기하는 일이며 유씨 집안의 존속, 흥성, 제사 계승 등을 위협에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다. 기우만은 차씨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한다는 측면보다는 차씨가 남편인 유씨 집안을 위해 살아 남았고 그 결과 집안이 흥성했다는 측면에서 차씨를 칭송한다.

그리하여 기우만은 여성이 아들을 잘 길러낸 일뿐 아니라 후사를 들이기 위해 노력 등에도 주목한다.

대개 아들을 잃은 부모를 봉양하여 천수를 누리게 하는 일이 죽은 남편의 마음이다. 뒤를 이어갈 아들을 세워서 선조의 제사를 봉양하게 하는 일이 죽은 남편의 마음이다. …(중략)…(송씨는) 방적을 부지런히 하여 집안을 위한 계책으로 삼으면서 ‘가난하여 기대고 의지할 바가 없는 집에 누가 자기의 자식을 주려고 하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결국 조카인 여현(勵鉉)을 후사로 삼았다.⁴⁸⁾

송씨(宋鎮淇 딸, 丁珉祚 처)는 혼례를 올리고 친정에 있었다. 그런데 시댁으로 들어가 시댁 사당에 인사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다. 이후 방적을 부지런히 하여 재산을 모았다. 후사를 들이는 데에 그 조건을 더 좋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송씨의 노동은 궁극적으로 후사를 들여 집안을 보전, 창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기우만은 송씨가 며느리 예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⁴⁹⁾ 수절하면서 남편 집안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48) 不心己心, 心亡夫心, 始可謂烈矣, 蓋養喪子之舅姑, 使終天年, 亡夫心也, 立嗣子以奉宗祀, 亡夫心也, …(중략)…勤於紡績, 以爲家計, 日貧無藉, 誰肯分子與之, 卒取從子勵鉉爲後, 嗚呼, 其與罔念夫家, 致命於一日者, 孰優而孰劣也. <孺人宋氏墓表>, 기우만, 『송사집』권42.

49) 기우만은 친영례 가운데 현구고를 마치지 않았으면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여겼다.(外史氏曰, 禮未見廟而死, 夫家不返葬, 未成婦也, 孺人未及歸,

점을 주목했던 것이다.

또 유인 송씨(丁永道 처)는 여공을 부지런히 하여 가세를 넉넉하게 만들고서야 조카인 정계수(丁桂秀)를 아들로 삼아 가계를 계승토록 했다.⁵⁰⁾ 유인 한씨(韓東奎 딸, 申克模 처)는 방적 일을 부지런히 하여 부유해진 다음 시대 종조의 손자인 정익휴(丁益休)를 세워서 가문의 제사를 이어받도록 조치하였다.⁵¹⁾

집안에 후사를 들이는 일은 대체로 남성들의 몫이어서 여성으로서는 주관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후사가 되는 사람은 이왕이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가 좀 더 좋은 집안으로 가고자 하였다.⁵²⁾ 그리하여 후사를 두고자 하는 집은 남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야 했고 그것이 여성의 책무가 되면 여성의 노력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가족(또는 가문)은 남성의 사회 진출의 발판이므로 매우 중요했다.⁵³⁾ 기우만은 자신의 시대가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체제가 흔들리는 시기로 파악했고 그것을 지키고 강화하는 데에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것은 여성을 가문적 맥락 속에 편입하여 순종하는 며느리 역할에서 더 나아가 가문 존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가한다.⁵⁴⁾ 가

所謂未成婦. <孝烈婦金氏傳>, 기우만, 『송사집』권50.)

50) 矢心下從, 既而曰我死則夫家誰祀, 勤女紅立家, 取從姪桂秀子之. <孺人宋氏墓表>, 기우만, 『송사집』권43.

51) 中歲喪夫子, 翌年喪摺求, 痛宗祀無託, 稼圃紡績, 夙夜匪懈, 以立其家, 益休以從祖孫承宗, 蓋孺人力也. <孺人韓氏墓表>, 기우만, 『송사집』권42.

52)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694~698쪽.

53) 김미영, 유교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삼종지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제33집, 47~71쪽.

54) 이러한 여성 인식에 대해 김남이는 ‘열녀를 넘어선 여종(女宗)’이라고 지칭하였다. 김남이, <의암 유인석의 민족자존론과 여성 인식>, 『대동한문학』 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300쪽.

문 안에서의 여성의 위상은 좀더 나아졌을지도 모르나 여성의 역할은 더 증가하여 책무의 부담은 더 커진 것이다.

2) 충으로 확장되는 여성의 덕성

기우만은 여성 행적을 기록하면서 열행과 구활 행적을 부각하였다. 기우만의 여성 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효행, 열행 등을 보면 ‘자기가 대신 하기를 기도하기-代身-’, ‘남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기’ 과정이 거의 빠짐없이 나타난다. 대신(代身)과 남편 마음 헤아리기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 마음이 밑받침이 된다. 이런 마음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열행으로, 친족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활 행위로 나타난다. 둘의 공통점은 ‘자신의 것은 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이다. 곧 망신(忘身)과 이타심의 표현이다.

기우만은 여성의 이러한 덕성과 행적을 부각하며 이를 충과 연계한다.

諡法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집안을 잊으면 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써 생각한다면 지아비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으니 누가 열렬하지 않다고 하겠는가?烈은 진실로 다른 하나의 실마리가 아니다.⁵⁵⁾

충효열은 한가지이다. 열부는 효자가 되고 효자는 왕의 신하가 된다. 그러므로 열은 가히 효가 되고 효열은 가히 충이 된다. 이른 바 子職, 婦職이라 는 것이 어찌 臣職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⁵⁶⁾

55) 諡法, 慮國忘家曰忠, 以此槩之, 則慮夫忘身, 夫孰曰不烈, 烈固非一端. <書孝烈 婦全氏實蹟後>, 기우만, 『송사집』 권22.

61) 竊謂忠孝烈一致, 烈婦而爲孝子, 孝子而爲王臣, 則烈可以爲孝, 孝烈可以爲忠, 所謂子職婦職, 豈遽謂不關於臣職者此也., <咸陽朴氏五孝烈傳序>, 『송사집』 권13.

그 대상이 임금이면 충이 되고 남편이면 효이 되고 부모이면 효가 된다. 충과 효는 그 이치가 한 가지이다. 자식이 부모만 생각하고, 부인이 남편만 생각하여 실천하는 일은 곧 효-자직(子職), 열-부직(婦職)을 다하는 것이다. 각각의 위치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자신을 잊고 상대만을 위한다는 점에서 효와 열은 일치한다.

그리고 이타적 마음을 실행하는 주체가 바뀔 때에는 열행이 충이 된다. ‘열부가 남자가 된다면 효자이고 효자가 왕의 신하가 되면 충신이다.’⁵⁷⁾고 말한 것은 열부가 만약 남자라면 충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여성 열행의 기저를 이루는 이타적 마음이 남성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효와 충이 된다는 점에서 기우만은 ‘삼강은 한 가지 이치이다.’라고 한다.

기우만은 남성의 신직(臣職)은 국가와 임금을 위해 자신을 잊고 충정을 바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위정자들은 개화한다는 명목으로 외세에 아부하거나 임금을 위협하고 심지어 나라의 주권까지 일본에게 넘겨주었다. 기우만은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 당하고 나라가 망한 일을 임진왜란과 비교하면서 그 환난은 임진난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탄하였다.⁵⁸⁾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들은 남성-위정자들이었고 그들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었다. 기우만은 ‘윤리가 쓸어버린 듯 모두 없어졌고 백성들의 뿔뿔한 도리가 아예 끊어져 버렸다. 나라를 배반하고 임금을 잊어버린 무리들이 잇달았다.’라고 했고⁵⁹⁾ 나라를 사사롭게 남에게 거저 준 적도들,

57) 烈婦而爲男子則孝子, 孝子而爲王臣則忠臣. <咸平李氏孝烈旌閭記>, 기우만, 『송사집』 권21.

58) 今年卽戊戌建旌後 已五周矣 倭奴之患 或浮于壬辰. <烈婦宋氏旌閭追記>, 기우만, 『송사집』 권17.

59) 方今倫綱掃地, 民彝滅絕, 負國忘君之輩踵相接也. <兆陽林氏烈孝旌閭記>, 기우만, 『송사집』 권21.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자들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기우만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들만 생각하고 나라와 임금을 잊었다. 나라와 임금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기우만은 그들을 ‘남편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을 행하는 여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⁶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우만은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 제도, 윤리의식 확립 등의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여성의 열행. 또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대신적(代身的) 마음, 고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은 윤리를 회복하고 남성들에게 충 의식을 격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기우만은 여성으로부터 그 정신을 배우기를 촉구하였다.

남편에 대한 부인의烈과 임금에 대한 신하의 忠은 똑같다. …(중략)…위에서 임금이 욕을 당하였어도 아래에서 신하가 죽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열부 이씨 같은 이는 남편이 아팠을 때 온전하게 남아 있는 살점이 없었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조용히 목숨을 바쳤다. …(중략)…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행적을 읽는다면 부끄러워 등에서 식은땀이 나지 않겠는가. 내가 이것을 드러내어 남자로서 임금을 섬기며 불충한 자들에게 고하고자 한다.⁶¹⁾

이씨(李友會 딸, 鄭邦燮 처)는 남편의 병 치료를 위해 할고하고 열 손

60) 妻之於夫, 猶臣之於君, 忠與烈非殊塗, 見今親臣世臣, 自謂讀書知義理者, 劫於一死, 至於販君賣國, 不少顧忌. <孝烈婦金氏傳>, 기우만, 『송사집』권50.

61) 外史氏曰, 婦之烈於夫, 猶臣之忠於君, 故并列爲三綱, 雖然男剛女柔, 男子之爲忠臣, 當易於女子之爲烈婦, 而嗚呼則不然, 主辱於上而未聞臣死於下, 反使烈婦如李氏者, 夫病體無完膚, 夫死從容從逝, 嗚呼烈哉, 烈行已上聞, 成命遽降, 可謂國人知之, 在朝之臣讀其行, 得無羞愧汗背者乎, 吾欲表而出之, 以告爲男子事君而不忠者. <烈婦李氏傳>, 기우만, 『송사집』권50.

가락에서 피를 내어 먹였다. 자신의 몸을 잊고 남편의 병만을 생각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은 비록 여성의 것이지만 남성이 배워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우만은 여성의 덕성을 국가를 위한 충심과 연계했고 그럼으로써 남편과의 관계나 가족간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국가적 맥락 속에서 그 의의를 부각시켰다.

5. 결론

기우만은 개화기와 조선 멸망을 목격한 유림이었다. 조부의 위정척사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는 유교적 윤리를 기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성 인식 또한 그 범주 안에 있었다. 여성의 수절과 열행을 강조했고, 하종하지 않고 아들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하여 가문을 위해 고난을 겪어내는 열행을 부각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열행을 충 윤리로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기도 했다. 여성 열행의 기저에 있는 ‘한결같은 마음’,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심’ 등을 충 윤리와 연계함으로써 당시 개화파나 변절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여성의 구활 활동에도 주목하여 여성의 역할을 가족적 범주에 두지 않고 향당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우만의 여성 인식이 전통적 유교 윤리 범주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근대화로 가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그가 생존했던 당시는 조선이 개방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뿐 아니라 열강 국가들의 틈새 속에서 국가적 위

기가 최고조로 달했고 결국 국가 멸망에 이르렀던 때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가 여성의 열행을 충과 연계하여 매국행위를 비판하고 임금과 국가에 대한 충정심을 고취하고자 한 시도는 그 나름대로 시대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기우만, 『송사집』, 고전번역원 DB.
- 최익현, 『면암집』, 고전번역원 DB.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들베개, 2009, 1~586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1~402쪽.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혜안, 2009, 1~300쪽.
-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1~448쪽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606쪽.
- 강정화, 노백헌 정재규의 삶과 학문-강우지역에서의 노사학 계승 및 확산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29집, 남명학연구소, 2010, 155~184쪽.
- 권수용, 『호남의 근대 누정 작가 작품연구-기우만, 오준선, 고광선을 중심으로-』, 『동방학』 19집, 동양고전연구소, 2010, 148~180쪽.
- _____, 『기우만의 수신간찰과 교유의 성격』, 『영남학』 24호, 영남학연구원, 2013, 319~355쪽.
- 김남이, 『의암 유인석의 민족자존론과 여성 인식』, 『대동한문학』 18집, 대동한문학 회, 2003, 291~318쪽.
- 김미영, 『유교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삼종지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33집, 철학연구소, 2007, 47~71쪽.
- 이혜순, 『열녀전의 입전 의식과 그 사상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의 열녀 담론』, 월인, 2002.

ABSTRACT

The recognition of women of the Confucian scholar who lived in honam
- focused on Ki Woo man(奇宇萬)

Kim, Gi-rim

Ki Woo-man(奇宇萬) was Confucian scholar who had lived in Jang sung and in early modern period. He was grandson of Ki Jung-jin(奇正鎭) who was the great Neo-Confucianist philosopher. He cherished the thought of his grandfather -the thought of Wijung Chuksa(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衛正斥邪). He raised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in 1896 in Jang-sung. He sent up a memorial to the Throne which demanded to punish five persons who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Ulsaneukyak:乙巳勒約) in 1910.

Ki Woo-man took a serious view of Yeolhaeng(烈行). He emphasized on that women who her husband died had to survive, serve her parents-in-law faithfully and bring up her son. It was that her mind was with the husband's mind(心從). This assertion based on the Way of Three Obediences(三從之道). They were the women who perpetuating the family of her husband and continuing a ceremony for the repose of her husband's ancestors. So he acclaimed for women who brought honor to her husband's family.

And Ki Woo-man emphasized on that woman dedicated to educate her son. So he had praise the mothers who moved to ideal educational environments, set up room where her son studied with his teachers and friends, work hard to make tuition fees.

On the other hand, Ki Woo-man interested in women who gave relief to the people. He highlighted women who extended a helping hand to relative and neighbors who was poor or starved during the drought.

Ki Woo-man intended to consolidate the patriarchal social order because he thought the patriarchal social order has been shaken It

increased the burden laid on the woman in early modern period.

Ki Woo-man, besides, Yeol(烈) connected with royalty. So he cried out against the immoral and corrupt politicians and demanded that they should imitate Hyo Yol Bu Jon(孝烈婦)'s virtues.

Key Words Ki Woo-man(奇宇萬), Ki Jung-jin(奇正鎭), the Way of Three Obediences(三從之道), Hyo Yol Bu Jon(孝烈婦), Wijung Chuksa(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衛正斥邪).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Ulsaneukyak : 乙巳勒約), her mind was with the husband's mind(心從).

논문투고일 : 2014. 10. 30
심사완료일 : 2014. 11. 30
게재확정일 : 2014. 12. 3

